

문 의	산업재산정책국	과 장 문창진	042-481-8621
	지역산업재산과	주무관 이미화	042-481-8653
		2월 7일(수) 낮 11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발명으로 국민안전과 안전산업 발전을 견인한다.

- 특허청,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과 국민안전 분야 MOU 체결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경찰청(청장 이철성), 소방청(청장 조종묵),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과 함께 안전분야 혁신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지식재산으로 사업화함으로써 국민안전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최근 사회·자연 재난과 인구고령화·시설노후화에 따른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기술 발굴 및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각 기관의 지식재산을 체계적 관리·활용하기 위한 협업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 포항지진('17.11),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17.12), 재천 화재사고('17.12), 평택 타워크레인 붕괴사고('17.12) 등 잇따른 사고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 고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특허청 등 4개 기관은 「국민안전 발명챌린지」를 공동 개최하여 재난·치안현장 공무원이 그간의 경험에서 우러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고 사업화나, 민간기술이전 등을 통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되며, 해당기술이 특허로 등록되어 활용되면

직무발명제도에 따라 등록보상금과 기술로열티의 50%를 받게 된다.

또한, 4개 기관은 각 청이 보유한 안전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전담조직을 활성화하고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안전기술을 발굴·관리하는데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업무협약(MOU)체결식에는 각 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도 전시되었다. 경찰청은 범죄현장에서 혈흔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루미놀 신약’을, 소방청은 ‘말하는 소화기’를, 해양경찰청은 휴대가 용이하며 기존 기능을 대폭 개선한 ‘이동로봇’ 등을 전시했다. 이러한 기술은 각 기관의 공무원들이 직접 개발하여 재난·치안현장에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이번협약은 국민안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18만 경찰·소방·해양경찰 공무원의 현장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라면서, “4개 기관간 협업을 통해 발굴된 안전기술은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안전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특허기술 전시 자료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정책국
지역산업재산과 주무관 이미화(☎ 042-481-8653)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 특허기술 전시 자료

<혈흔 탐지용 조성물(루미놀 新 시약)-경찰청>

□ 국유특허 개요

- 특허명 : 혈흔 탐지용 조성물
 - 발명자 : 검시조사관 임승(광주지방경찰청), 연구관 임시근(국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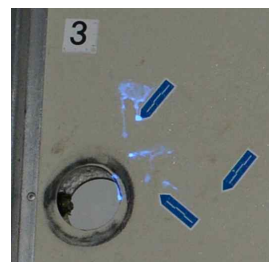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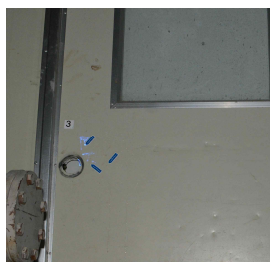
□ 국유특허 주요내용

-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죄현장의 혈흔을 찾기 위한 루미놀 新 시약
 - (민감도) 1/10,000배 희석혈흔 탐색 可, 수입제품 동일성능
 - (발광강도) 암실 불필요, 수입제품 대비 동일 또는 그 이상
 - (안정성) 시약제조 후 1주일 이상 사용 可(수입제품은 최장 2일), DNA 훼손 없어 시약처리 후 DNA 감정 가능
 - (경제성) 수입제품 대비 절반 이하 가격으로 국산화 가능

□ 국유특허 활용결과 및 기대효과

- 루미놀 新 시약(가칭 '블러드플레어') 시제품 자체제작 및 시범운용
 - '17. 11. 경남청 살인사건 사건해결 기여 등 현장반응 우수

< 경남청 살인사건 적용사례('17.11) >



- 실시 희망업체 통상실시권 허락 등 국유특허 처분절차 진행
 - 사업화 계약 체결(2월限), 제조방법 표준화 등 검증 및 사후관리
- 국제특허 출원 및 국내·외 제품 우수성 홍보 및 교육 등 실시
 - 미국·유럽 등 출원(상반기), 특허등록 결정 시 국유특허화(하반기)
 - 국내·외 논문 및 포스터·구두발표, 해외파견 교육 실시

<말하는 소화기-소방청>

□ 국유특허 개요

- 특허명 : 화재를 소화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사용법을 출력하는 장치
 - 발명자 : 지방소방경 홍의선(경기도청), 지방소방장 백정열(경기도청)

□ 국유특허 주요내용

- 화재를 소화시키기 위해 사용자에게 의해 조작되는 각 구성 부품의 조작순서의 번호 및 명칭을 포함하는 사용법의 음성정보를 저장
 - 조회 신호를 수신하여 저장된 음성 정보를 출력하는 저장부
 - 사용자의 버튼 입력을 받고, 입력 신호를 출력하는 버튼부
 - 제어 신호를 수신하여 상기 음성정보를 출력하는 스피커부
 - 조회된 음성 정보의 출력을 제어하는 제어부



□ 국유특허 활용결과 및 기대효과

- 여성, 노약자 등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용자라도 쉽게 조작하여 화재를 초기 집압할 수 있는 효과 발생
- 실시 희망업체(2개 기업) 통상실시권 허락 등 사업화 및 상용화 지원
 - 2개 업체와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2가지 모델로 시판 중
 - 2017년도 인천 소래포구 시장내 모든점포,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3만여개가 판매됨
 - 지자체 등의 주거환경복지사업, 주택용 소방시설 사업과 연계되어 지속 판매 중(SBS, MBC, 중국 CCTV, 네이버 등 언론홍보 다수)

〈이동로봇-해양경찰청〉

□ 국유특허 개요

○ 특허명 : 이동로봇

- 발명자 : 이덕규 경장 (서해지방해양경찰청)

□ 국유특허 주요내용

○ 필요한 기능에 집중한 맞춤형 로봇으로 가볍고 작아 휴대성 용이

○ 플리퍼를 이용하여 높은 계단, 급경사, 좁은 문등의 장애지역 극복 가능

- 위험지역에 요원을 대신하여 안전하게 임무완수 가능

□ 국유특허 활용결과 및 기대효과

○ 기존 폭발물 처리 로봇은 매우 고가이고 매우 큰 중량·부피를 가지기 때문에 운용이 어려움

- 본 발명품은 백팩 형식으로 메고 다니며 적시적소에 활용가능함

○ 현재 국유특허 기술이전 계약완료 및 해외출원 진행 중



물포 상향 조준



물포 하향 조준



경사 및 계단극복(내려가기)



경사 및 계단극복(올라가기)



폭발물처리



분해된 폭발물